

우리 하나되어



필리핀 단기선교

한마음 수양회 -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외

세례식 - 항상 예비해주시는 하나님 외

헬로쉽 한국학교 민속놀이 날

우리하나되어

CONTENTS | 2010. 3

- 03 오아시스 미니스트리 스노우 튜빙 (2월 21일)
- 04 필리핀 단기선교 - 필리핀에서 만난 여인들 외 - Ena Choi 외
- 10 바이블 아카데미 - 기독교 교리 - 김경숙
- 16 세례식 - 항상 예비해주시는 하나님 외 - Michelle Hahn 외
- 20 성장반 -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 - 오양석
- 21 제자반 -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 훈련 - 김정원
- 22 헬로쉽 한국학교 민속놀이 날
- 24 한마음 수양회 -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외 - 성준화 외
- 30 선교사 편지 - 뜨거운 예배를 그리워 하며... - 이요셉 선교사
- 32 DTS -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 - Mark Paig

표지사진설명

헬로쉽 한국학교 민속놀이 날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헬로쉽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22



24



인사이드 스키 산우 튜빙 (2월 21일)





필리핀에서 만난 여인들

글 - Ena Choi

거리는 색다른 소리의 소음으로 북적거리고, 습한 공기는 내가 전에 맡아보지 못한 냄새들로 꽉 차있다. 작은 자동차들과, 인력거 택시들, 그리고 화려한 색깔의 지프니들이 있으며, 풍부한 코코넛 나무들과, 들개들, 그리고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보기 드문 것들이지만 필리핀의 사마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헬로쉽교회 멤버인 우리 팀 16명에게는 사마지방이 메릴랜드와 얼마나 다른 곳인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놀라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2주 동안의 짧은 우리의 여정 모든 곳에서 함

The streets are bustling with noise but it's a different kind of sound. The humid air is thick with a fragrance but it's a scent I have never smelt before. There are small cars, rickshaw taxis and bright colored jeepneys. There is an abundance of coconut trees, stray dogs and people smiling. All of these things are scarce where we live but is common in the Samar province of the Philippines.

It was a privilege and an eye-opening experience for our team of 16 members from NCFC to see firsthand how different Samar is from Maryland, but what was even more amazing was to witness what we had in common. We worship the same awesome God and He was so present everywhere we went in the two weeks of our short trip.



께해 주셨다.

출렁거리는 지프니와 허름한 보트를 타고 도착한 조용한 섬 Oquendo에서 나는 분홍빛 드레스를 입은 작고 나약한 한 소녀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우리 팀이 마을 어린이들에게 찬양을 인도한 후, 6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관중들 앞에 일어났다. 그 아이는 성경의 한 구절을 낭독하더니 ‘네 모든 짐을 주님께’ 찬양을 부르며 춤을 추는 것이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은 나를 눈물 나게 했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그리고 항상 이곳에 계셨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Ilo라는 마을에서 우리는 의료 및 어린이 사역을 마치고 여러 가정을 방문하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가족은 몇 세대에 걸쳐 이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필리핀 사람들이 대체로 친절하듯이, 그녀도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주었지만, 사실 그녀는 진심으로 우리의 이야기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녀는 특히 성경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믿는 이단은 멤버들에게 자신들의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성경은 그 교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리의 기도를 원했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믿음의 씨앗을 이미 심으신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일에 우리 팀은 나누어져 동네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들 중 4명은 Calbayog의 New Life Church에 참석했다. 우리는 교회에 맨 먼저 도착한 사람들 중의 하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교회는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들로 가득찼다. 우리는 그들의 언어와 영어로 찬양을 했는데, 그곳에 모인 우리 모두 같은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았다.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다.

A bumpy jeepney ride and a rickety boat trip brought us to the quiet island of Oquendo where I saw God illuminated through this small, frail child in a pink dress. After our team led the village children in worship songs, this girl, who was no more than 6 years of age, stood up before the crowd and recited verses from the Bible and then started to sing and dance to “Cast your burdens unto Jesus.” The sweet sight brought tears to my eyes and I knew that my God was here on this island and has always been.

In the village of Ilo, after attending to medical and children’s ministry, we visited homes and we met one woman whose family belonged to a cult for generations. She invited us into her home as Filipinos are most hospitable, but she was genuinely interested in our story and in our Jesus. She asked many questions about the Bible since her cult does not allow their members to own copies of their “bible” of which there is only one copy that belongs to their preacher. She wanted our prayers and I could see that our God had planted a seed.

On Sunday, our team split up and visited local churches. Four of us attended New Life Church in Calbayog. We were one of the first to arrive but before long the small church was filled with beautiful voices in passionate worship. We sang worship songs in their native language and in English but everyone in that room knew that we were praising the same worthy God and there was power in that union.

God’s presence was apparent in many more ways - through the devoted and disciplined lives of the SICAP students, through the sacrifice and unconditional love of Pastor Daniel and Ruth, and through the camaraderie and unity our team of 5 married



couples and 6 singles shared. While I could only bring memories of these things with back home with me, the greatest blessing from this trip was being reminded that the same amazing God lives in me.

In closing, I wanted to share with you lyrics from a praise song we sang together at the church in the Philippines. 

**You carried the cross for the world
Gathered the lost and the fatherless
My Shepherd and King
I find You within me
For You are here
My Lord forever
You are here**

**In this place, you are here
By Your mercy, I draw near
In my heart, take your place
You are here**

**The same power that conquered the
grave
Lives in me, Lives in me
Your love that rescued the earth
Lives in me, lives in me
You are here**

"You are Here" by Hillsong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다른 여러 면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다. 헌신적이며 훈련받은 씨잡(SICAP) 학생들을 통하여, 다니엘과 롯기 목사님의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 그리고 다섯 커플과 여섯 명의 싱글로 구성된 우리 팀이 나누었던 동지애와 화합을 통해서 말이다. 비록 집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추억들뿐이지만, 이번 단기선교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그곳에서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내 안에도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번역: 양하영>

가장 작은 것을 드리고 최상의 것을 얻는 길

글 - Young Yi

얼마 전 나는 처음으로 단기선교에 다녀왔다. 그곳에서의 체험은 지금까지 내가 다녀온 모든 여행을 통틀어 최고의 경험이었다. 나는 언제나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흔히 누리고 있는 호화로운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없는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가보고 싶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존 모드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헬로쉽교회에 6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2009년 5월 27일에서야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번 단기선교는 나에게 정말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정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이다.

선교를 떠나기 바로 전, 나는 다행히 형이 있는 콜로라도 주를 2주 반 정도 방문할 수 있었는데, 그 여행을 통해 필리핀 선교가 얼마나 더 보람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연달아 갔던 두 여행의 목적은 완전

I just got back from my first missions trip of my life and I would put the whole experience at the top of all of my travel experiences. I've always wanted to go to a country like the Philippines where the people do not have access to the many luxuries we have here and the Filipinos are constantly in survival mode. I came to NCFC starting in 6th grade but never accepted Christ until very recently on May 27th, 2009. I now understand that my trip was such a blessing for me because I placed God first and the main reason I wanted to go was to spread the gospel. I was fortunate enough to go on another trip right before when I went to Colorado to visit my brother for 2 ½ weeks because I was able to see how much more rewarding missions are. The goals were completely opposite with my two back-to-back trips where I went to Colorado to snowboard and have fun with my brother whereas the goal for Philippines was to minister and





히 다른 것이었다. 콜로라도에 간 목적은 스노우 보드를 타고, 형과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고, 필리핀에 간 목적은 선교를 하고 사마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었다. 두 여행을 떠나기 전, 사실 나는 콜로라도에 가는 것이 더 좋았고, 단기선교보다 더 보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내 마음은 선교 날짜가 정해지기도 전에 콜로라도 여행 계획을 세운 것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나는 엄마와 Seth 집사님께 만약 선교 날짜가 콜로라도 여행 날짜와 겹치게 되면 필리핀에 가는 것을 취소해도 되는지 의논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됐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만약 그랬더라면 잘못된 결정이었을 것이다.

필리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Guin-On'이라는 'Calbayog'의 마을을 지나갔다. TV를 통해 보는 것과는 달리, 후진국의 생활환경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만드는 경험이었다. 첫 번째 미팅을 하면서 다니엘 목사님은 어느 곳을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상 밖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다음날 우리는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를 시작하면서, 다니엘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원래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것은 내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성령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구원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나의 감정은 사소한 경계심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호화로운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을 초월한다. 이것이 내가 필리핀에서 깨달은 놀라운 것 중에 하나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가 가

connect with the Samarinos. Before both trips, I was more excited and thought Colorado would be more rewarding for me. This was evident when I had made plans for Colorado well before the mission dates were 100% set and were almost changed to cut into my Colorado trip dates. I discussed the possibility with my mom and Deacon Seth if the dates were to "interfere" with my original plans and was going to cancel the Philippines instead of my first trip if that were to happen. Thank God I did not have to make that decision because it would have been the wrong one for me!

When we first arrived in the Philippines, we drove through the streets of the local Barangay (village) Guin-On in Calbayog and seeing the living conditions of a third-world country in person was a humbling experience compared to seeing them on TV. During our first meeting with Pastor Daniel, he told us to expect the unexpected wherever we go and in whatever we do. God is the same in that he has no expectations for us. As we began our ministries the following day with door-to-door evangelism, I understood why Pastor Daniel taught this to us. I am normally a very shy and reserved person so door-to-door evangelism was completely out of my comfort zone. But since I was representing God, these were minor boundaries because our goal was to share the fruits of the Spirit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the joy of salvation, and the grace of God through our testimonies. The gifts we have received from God transcend any luxury or worldly thing that we have and that is one of the greatest things I've learned at the Philippines. The people there may never have the luxuries we have, but they still have access to God.

One of the many endearing traits of the Samarinos is that they are so hospitable and friendly to visitors where they had no qualms about letting us enter their homes and offering the seats that they were just sitting on. After seeing their living conditions and how they can still be so friendly and welcoming, I devel-

지고 있는 사치품들을 평생 소유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다가갈 수 있다.

사마 사람들의 사랑스런 특징 중 하나는 방문자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다는 것이다. 우리를 자기의 집에 들어가게 해 주고,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의자를 내어주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다. 힘든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사마 사람들을 보고 나는 사마 사람들에게 사랑과 애뜻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또 다른 사역은 아동사역이었는데, 학교를 방문하고, 아이들과 같이 노래를 불러주며, 게임과 여러 가지 놀이를 함께 해 주는 것이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은 항상 활기차고 즐거워해서, 보는 우리 팀도 같은 에너지와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 팀멤버의 모습도, 즐거워하며 웃는 아이들과 같은 모습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우리가 어떻게 느끼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삶을 즐거워 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사마 지역 어린이들과의 경험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에서의 경험을 통해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많은 좋은 교훈들을 얻었다. 우리 팀은 여러 연령층의 다섯 커플과 여섯 싱글들로 구성되었는데, 그룹의 원동력은 정말 완벽했다. 때론 육체적으로 힘든 여행이었지만, 우리는 3시간씩 지프니를 타고, 4마일을 걸어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주셨기 때문이다. 단기선교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두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내가 받은 은혜는 선교를 가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돈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번역: 양하영>

oped so much compassion and love for the people of Samar. Another ministry that we did was children's ministry where we would visit schools and sing songs, play games, and other activities. The children were always so energetic and excited whatever we did which gave our whole team the same energy and excitement. Just seeing the children's joy and laughter and how our team mirrored them reminded me how God sees us and wants us to feel. God wants what is best for us and I understand more of how He feels when we are genuinely happy and enjoying our lives after experiencing that with the children.

All in all, the experience I had in the Philippines was one that I will never forget and learned so many important lessons from. We had an amazing team with 5 couples and 6 singles of all different ages, but the group dynamic was perfect. The trip was physically demanding at times but I didn't mind any of the 3-hour Jeepney rides or 4 mile hikes because we were rewarded exponentially more for giving what little we could. I highly recommend missions for anybody as it truly is an amazing experience; the rewards I received from missions are priceless compared to the time and money I paid to go. 



바이블 아카데미

기독교 교리

제 4 강의 : 성령

2010년 1월 24일. 바이블 아카데미 네 번째 시간이 찾아왔다.

누구에게나 생각만 해도, 그 이름만 떠올려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필자에게 부모가 그렇다. 자식들을 위해 그분들이 감당해 내신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쏟아내야 하는 연기자의 눈물연기 정도는 우습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다. 그분 때문에 난, 지난 일 년 동안 반평생 흘렸던 눈물보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 나에게 눈물을 주시는 또 한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오늘의 주제가 ‘성령’이다. ‘성경적인 성령론’이란 제목으로 첫 마이크를 잡은 양경옥 목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 없다.”는 단명한 표현으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구했다. 역사적으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한 결과 교권중심의 정적인 교회로 치우쳐 결국 교회의 쇠퇴를 초래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신비주의에 빠져 이단으로 규정되기도 했으니, 이러한 폐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한 성경적인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회복로 씬
 바이블
 아카데미

“기독교 교리”
 Week1. 성경 (Bible)
 Week2. 하나님 (God)
 Week3. 예수님 (Jesus)
 Week4. 성령님 (Holy Spirit)
 Week5. 구원 (Salvation)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18)

양 목사는 “성령은 인격이시다.”라는 한 마디로 성령을 규정지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경에 여러 상징으로 표현되었다는 이유로, 자칫 성령님을 물체화 하고 비인격화하기 쉬우나 그분은 확실히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추신 인격이시다. 비록 성경에 생수, 불, 비둘기, 바람, 기운, 기름, 인장, 술, 비 등의 여러 가지 상징으로 표현되었지만, 모든 비유와 상징은 단지, 어떤 대상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한 표현 방법일 뿐이다. 그런 표현 방법에 속아 ‘전지함으로 아셨고(고전 2:10-11), 사랑하시고 근심하셨고(롬 15:30), 자의적으로 결정하시고 실행’(행16:7, 고전 12:11)하신 인격으로서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출생에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마 1:20)하셨고, 성령이 임하여 공생애를 시작(마 3:16)하셨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시험받으셨고(마 4:1),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눅 4:18-19), 성령으로 죽으시고(히 9:14),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롬 1:4, 8:11)

결국 양 목사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알 수도 없다. 성령은 인격이시므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을 환영하고 갈망하고 사모하자.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어준다.”는 총괄적인 정의로 강의를 마쳤다.

잠시 김원기 목사가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부르며 나왔다. 찬양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부르면서 어찌나 눈물을 흘리는지...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눈물이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체할 수 없이 흘리게 했던 그 눈물, 그때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이젠 시도 때도 없이 행사하시는 것이다. 모든 허드렛일은 도맡아 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성령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그분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게 하는 것이다. 김 목사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박해하고 무시했던 성령님을 다시 한 번 우리의 삶에 초청하자. 그 분이 내 안의 모든 어두운 곳을 없애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진정,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 준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사랑의 힘일 것이다.

마이크는 헬로쉽교회 목회의 홍일점, 조진숙 목사에게로 넘겨졌다. 심심했던 무대가 금새 화려해지고 명랑해졌다. 이게 여성의 힘이다. 조 목사는 성령의 주체적인 사역 중 구원 사역에 대한 강의를 맡았다.

강의 전, 거북이와 달팽이, 지렁이가 등장하는 우화를 들려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며, 강의 내용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말라는 살뜰한 위로를 잊지 않았다.

구원의 문제는 기독교 교리 중 그야말로 뜨거운

2010 제자훈련 봄학기

수요성경대학
 개강: 3월 3일(수) 오후 7:30
 MD- 읍기 & 아가서, VA- 창세기
 등록: 2월 14일 - 3월 3일까지, 등록비: \$10

평신도 제자훈련과정
 개강: 3월 14일(일) 오후 12:30
 과목: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VA만 해당)
 등록: 2월 14일 - 3월 7일까지, 등록비: 무료

감자라 할 만하다. 역사적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 22:14)라는 성경 구절의 해석을 놓고 박빙의 논쟁들이 이어져 왔다. 이 논쟁들에 대해선 바이블 아카데미 마지막 주에 살펴보게 될 테니, 오늘은 일단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만을 정리해 본다.

먼저 ‘중생’이다.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며, 이는 결코 상실될 수 없다.(요 10:29, 롬 8:38-39) 다음은 ‘내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임을 증거하신다.(롬 8:9-11, 요 14:17)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고전 12:13) 그리고 ‘보증’하신다. 인치시고 하나님께 자녀임을 확증하신다.(엡 1:13) 또 ‘성령 충만’을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시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엡 5:18),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 또한 ‘권능’을 주신다. 사탄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갈 5:17) 그리고 가르치신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요16:13)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순서로 일어나진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이고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이다. 결국, 조 목사는 “성령은 구원의 기초자이며, 유지자이고, 완성자이십니다.”를 외치며 성령 충만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다음 강의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김원기 목사는 “양 목사와 조 목사가 저에게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말을 빨리 하는 은사를 받으세요.”라며 너스레 섞인 충고를 한다. 천천히 말해도 이해하기 힘든 필자에게 그 말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그리고 걱정이 밀려왔다. 이제 속사포처럼 쏟아질 김 목사의 언어를 어떻게 잡아챌 수 있을지...

‘신령한 은사들’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맡은 김 목사는 일단,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부터 순식간에 훑어 내렸다. 그 대강은 이렇다.

중세 카톨릭은 성령을 소멸시키고 행위로 구원받으려 했기 때문에 점점 타락하여 종교인이 되어 갔다. 어느 날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땅속에 파묻혀 있던 보배를 찾아낸 것이다. 그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9세기 말 캘리포니아의 어느 흑인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다가 오순절을 체험하게 된다. 그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서 오순절교단(20세기, 1940년대 초까지)이 성행하게 된다. 현대 이들은 이원론적 신학을 주장했다. 즉, 구원 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언은 여러 은사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이들 이원론적 신학자들과 약간 거리를 둔 파들이 생기게 되었다. 소위 은사주의라 불리는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

Anyone can come: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Learning & Laughter:
기독교신앙에 대해, 즐겁게 웃으며 배웁니다.

Pasta:
함께 식사하며 우정을 쌓아갑니다.

Helping one another:
함께 토론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임입니다.

Ask anything:
매 시간마다 배운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질문하며 토의 할 수 있습니다.

VA - 2월 21일(일), 오후 5시
MD - 4월 4일(일), 오후 5시

폭발적인 은사운동을 일으키고 70년대 초에 무르익었다. Dennis Bennett의 저서 <Nine O'clock in the Morning>은 그 운동에 힘을 더한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들은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 아니며 방언은 성령 충만할 때 체험하는 것 중의 하나일 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미 성령세례를 받았으며 ‘second blessing’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김원기 목사의 생각도 이것이다. 이들을 은사주의라 칭하듯, 헬로쉽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열려 있는 교회이다.

김 목사의 은사에 대한 견해는 이렇다. 성령의 은사는 수십, 수백 가지로 다양하며, 우리는 이미 여러 은사를 받았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소중하며 은사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나 어떤 은사든 은사를 주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은사에 집중하면 교회는 망가진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뒤로 물러나야 하며, 교회 안에서 건전한 은사 운동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라. 슈퍼 내추럴한 것이 내추럴하게 일어나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 교회를 세우는 게 담임 목사의 비전이다.

말을 빨리 하는 은사뿐만 아니라,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 나온 김진광 목사를 보고 배우 배용준을 닮았다며 놀리는 김 목사의 재치도 분명 성령께서 주신 은사겠지?

제 5 강의 : 구원

1월 31일. 바이블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이다. 기억나는 것은 거의 없지만, 갈수록 강의는 흥미롭기만 하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일 분 일 초가 아깝고 소중하다.

오늘의 주제는 구원!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기독교 역사에서 구원에 대한 논쟁은 정말 뜨거웠다. 구원 문제는 신앙생활의 시작인 동시에 끝이기도 하고, 나의 문제인 동시에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만큼 할 말이 많을 것을 알고, 김원기 목사는 시간 엄수에 대해 한층 강력한 협박을 가한다.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한 시기, 조건, 범위를 알 수 있다. 즉 ‘시기는 창세 전,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범위는 우리’이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했을 때 ‘창세 전’이라는 시기는 너무 막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은 너무 불분명하고 ‘우리’라는 범위는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이유로 그 해석을 놓고 무수한 논쟁들이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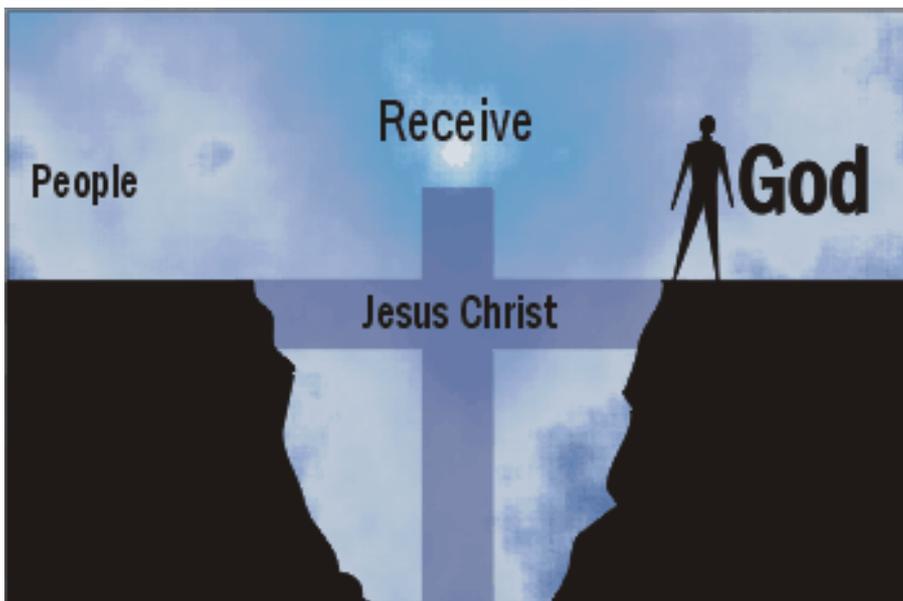
장승민 목사는 “예정론으로 알려진 선택에 관한 몇 가지 견해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적 선택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성경의 설명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고, 교회사 2000

년 동안 전개되었던 논쟁들을 소개했다. 그것도 단 15분 만에. 불행히도 필자는 그럴 감양도, 친절함도 부족하여 몇몇 불꽃 튀었던 논쟁들만 설렁설렁 정리해 본다.

논쟁의 발단이 된 1세기, 야고보와 바울의 견해를 들어보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약 2:14-24)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롬 4:5-22)

야고보가 맞는가? 바울이 맞는가? 다 맞는 말 같다.

다음은 5세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이다. (위의 표를 참조하라.)

이들 논쟁의 핵심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나, 인간의 자유의지나 하는 것이었다. 결국 양극으로 치우친 두 주장은 반(半)펠라기우스로 절충되었다. 이 이후에도 정-반-합의 논쟁은 계속되어 1000여 년이 흐른 17세기 초, 칼빈과 알미니우스에 이르러 또 다시 정점을 맞이한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 'TULIP'에 대해서는 정광호 목사가,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에 대해서는 양경욱 목사가 맡았다.

두 교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라.)

칼빈의 ‘툴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T(전적부패)-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자유스럽지 않고 인간의 의지는 죄에 얽매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U(무조건적 선택)-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행위에 있

어거스틴	펠라기우스
인간의 원죄 인정(아담의 죄는 유전된다)	인간의 원죄 부인(아담의 죄는 아담에 한정)
인간은 타락한 자유의지로 죄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의지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어거스틴의 ‘참회록’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가하려는 의식이 농후하다.)

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 속에만 있다는 것이다.

L(제한 속죄)-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I(불가항력적 은혜)-복음의 외적 선포와 함께 성령은 죄인들을 불가항력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가신다.

P(성도의 견인)-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 신분에서 궁극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

알미니안주의는 이에 대비해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히는 것은 두 교리가 모두 성경을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낭패다. 누가 옳은가? 이럴 땐 정말 하나님께서 대답해주셨으면 좋겠다.

장승민 목사는 교회 2000년의 역사를 진자운동에 비유하여 어느 한 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교회 최초의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야고보는 바울을 회의에 초청했고, 바울은 야고보를 초청했다. 그들이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잡아쥔 균형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회사 2000년의 진자운동을 멋지게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TULIP)
1.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능력	1. Total Depravity(전적 부패)
2. 조건적 선택	2. Unconditional Election(무조건적 선택)
3. 보편적 구속 혹은 무제한 속죄	3. Limited Atonement(제한적 속죄)
4. 성령은 실제로 거스려질 수 있다. 또는 가항력적 은총	4. Irresistible Grace(불가항력적 은혜)
5. 견인의 불확실성	5. Perseverance of the Saints(성도의 견인)

마무리했다.

김원기 목사가 내린 결론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나는 어거스틴 사상을 바탕으로 한 진보적인 알미니안 칼빈니스트라고 하지.” 여기 저기서 폭소가 쏟아졌다. 이어서 김 목사는 “한국 사람들 비빔밥 즐겨먹지. 영양분 있는 것들을 골고루 넣어 먹으면 다 몸에 좋아. 하나님께서 매우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칼빈, 알미니우스, 어거스틴, 존 웨슬리...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종파의 교회가 세월을 거치면서 성숙해졌다는 사실이고 이들 모두가 예수의 보혈에는 생명을 건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보편구원설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못을 박았다.

다음 순서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보편구원론’이었다. 강의를 하는 김우성 목사에게 제일 고달픈 시간이었을 수 있겠지만, 강의를 듣는 우리에게겐 오히려, 긴장을 풀고 들을 수 있는 느슨하고 험겨운 시간이었다.

김우성 목사는 “들을수록 골치 아프고,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 하나도 기억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저 담임 목사님의 교리를 따라가면 된다.”며 너털너털 웃음으로 변명하였다. 이에 한판 대결이라도 벌일 듯 담임 목사가 강단으로 올라섰고 둘의 대결 아닌 대결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을 그림으로 남겨졌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의 구원 교리를 들어보기로 하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열린 초청을 하신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드물다. 즉 선택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한해서 불가항력적인,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냐고? 그건 모른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시지만, 굳이 니가 걸어나갔다고 하면 강제로 믿게 하지는 않으신다.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걱정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지라도 그 외의 말씀, ‘순종하면 천대까지 축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삼 대까지 저주하신다’는 경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낸 환상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긴장 속에서 살게 하시냐고?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구원은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화되는 과정이다. 그분이 정말 날 구원하셨으면 나에게 성화에 대한 갈망, 예수 닮고 싶은 갈망도 함께 주신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의 확신을 놓고 씨름하는 유치한 수준에서 벗어나 성장해라. 우리에게 똑같은 신분을 주셨지만 우리가 다 똑같은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열망을 주신다. 오늘도 나랑 같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살아볼래? 라며...”

확실히 담임 목사는 어거스틴 사상을 바탕으로 한 진보적인 알미니안 칼빈니스트가 맞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테지만, 단 1%라도 우리가 저야 할 책임이 있다면, 처음 느꼈던 그 사랑과 그때 고백했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건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값없이 받았으나 정작 값싼 공짜는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자.

이것으로 바이블 아카데미 5주의 대장정을 마친다. 참 날쌔게 시간이 흘렀다. 지식을 얻은 목적으로 시작된 교리 강의 끝에 얻은 건, 역설적이게도,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아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얻은 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화장실에 잠깐 들러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라. 어찌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 다시 눈을 씻고 확인해야 할지도 모른다. 평소 웃을 줄 모르는 인간이었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보조개까지 파인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거기 서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이 보고 싶어 자꾸만 자꾸만 거울을 찾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사랑을 얻었다. 이쪽에서만뿐만 아니라 저쪽에서도 좋아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분이 보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숫제 찬양까지 흥얼거리게 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슥 3:17) 

글 - 김경숙





항상 예비해주시는 하나님

글 -Michelle Hahn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크리스천으로서 산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어린 시절,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찬양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친구들과 만나고, 밥을 먹고, 기타 등등의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곳이 교회였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고 혼란스러웠다. 기본적으로 나는 아주 대단히 헌신하는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우리 삶에는 무엇인가가 더 있다는 것을 믿었다.

중학교 시절, 나는 수양회를 점점 더 많이 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수양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어떤 단계들을 밟아가는 것 같았다. 수양회를 다니면서 나는 점점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어느 여름 수양회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분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나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차츰 하나님께 신실해져갔다. 곧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앞으로 더 나오라고 하셨고 나를 위해 예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계속되는 수양회에 참석하면서 나는 마침내 멕시코 단기선교를 다녀오기로 결정했다. 이 단기선교는 내 인생을 바꾸었고,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 나는 제자훈련을 받고 더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갔다.

그리고 9학년이 지났을 때 쯤, 하나님께서 몇몇 상황들을 통해 나에게 리더가 되어서 한 단계 더 앞

Like any other church born kid, being Christian was more like a routine than a special occasion. I spent most of my childhood remembering church not as a place of meeting God, or praising him. I felt there really was no purpose to church other than doing the usual; seeing friends, eating food, and so on. I was confused and felt I didn't know where I belonged or whether God even existed. So basically I wasn't exactly the most devout Christian of all time, but I really believed that there was something more to life.

Then as I went through my middle school years I begin to attend more and more retreats. These series of retreats almost seemed like phases, and each retreat seemed to make me more interested in God and developing a relationship with him. Then during a summer retreat, one night I felt that God was speaking to me and also wanted to reveal himself to me. From then on I wanted to pursue a love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I gradually grew more faithful.

Pretty soon God was telling me to step up and that he would provide for me. So as retreat after retreat passed by I finally decided to go on the Mexico Missions trip. This trip changed my life, and showed me that God was genuinely at work all around me. But after meeting God for the first time I continued to spiritually strengthen myself by taking discipleship classes, and attending more sermons as well.

Then after 9th grade I felt that God in some ways wanted me to take the extra step by becoming a leader. Personally, I was stubborn and didn't want to listen so I continued to ignore the opportunities God handed to me. Then one summer I took an Oikos leadership course and finally learned to become a leader. Now I'm not saying I'm the perfect Christian girl because I've had my fair share of problems, but after a while I felt that God was opening doors for me to become closer to him.

So after the leadership course, about a year passed and then I became an Oikos leader intern. At

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나는 마침내 오이코스 리더쉽 훈련을 받았다.

나는 지금 내가 완벽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문들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느낀다. 오이코스 리더 훈련을 받고 1년이 지나서 나는 오이코스 리더 인턴이 되었다. 인턴이 되었을 당시, 나는 그저 인턴만 맡을 뿐이지 리더나 다른 어떤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12학년이 될 즈음에 나는 오이코스 리더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아니 오이코스 리더가 되도록 '구슬러'졌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만큼 내가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가 된다는 것이 긴장되고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알게 해 주셨고 오이코스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완벽한 리더는 아니었다.

여전히 나에게는 의심들이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좀 더 자신감 있고, 겸손하고, 신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안다. 나는 지금 브룩빌(Brookeville) 오이코스의 리더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심지어는 오이코스 멤버들에게서도 배우고 있다.

예전에는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수많은 변명들을 만들어 냈었지만 이제는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이유도 다 떨어졌다. 나는 이제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보일 준비가 되었다. 

<번역: 오진이>

the time I thought that I would just take the position and most likely not become a leader or anything big at all, but pretty soon my senior year came around the corner and I was asked or in a way "coaxed" into becoming one. As I became a leader I was nervous and worried, to say the least, about leading because I believed that I wasn't experienced enough to even begin talking about God's word in front of other people. But God always revealed his message to me and helped me lead the Oikos, but I still wasn't the perfect leader.

Even though I still have my doubts I now see that the Lord gave me this opportunity to become more confident, humble, and faithful. So now I am a leader of the Brookeville Oikos and I am always learning from the word of God and even from my Oikos kids.

In the past I've made tons of excuses as to why I shouldn't get baptized, but now I've simply run out of reasons not to. So now I truly believe that I'm ready to show others and even myself that I accept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Richard Choung



Rachel Lee (위) Rachel Lee 가족 (아래)

결혼보다 큰 축복

글 - 윤승재



저는 헬로쉽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자꾸 교회에 나와 보라며 권면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살았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대부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딱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신적으로 너무나 공허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이곳 메릴랜드로 이사 온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결혼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일들로 몹시 바쁜 시기였습니다. 솔직히 처음 헬로쉽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는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결혼식 주례를 해 주실 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친한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헬로쉽교회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친구와는 어렸을 때부터 친했는데 사실이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변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도 젊었을 때는 꽤나 말쑥도 피우고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반대의 길을 가던 친구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180도 바뀌어서 심지어 얼굴 모습까지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호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혼 주례도 김원기 목사님께

서 서 주셔서 헬로쉽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때 생각은 결혼도 무사히 치렀는데 한 3-4개월 다니다가 슬그머니 빠져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니다 보니 오이코스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고마운 신앙의 선배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진정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되었고,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던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조금씩 가슴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너무나도 은혜로운 선생님들의 지도로 등록 과정과 성장반 과정을 거치면서 의심과 의문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알 수 없는 힘으로 정화되어 간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제 평소의 삶도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분들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세례를 생각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아직 너무나도 부족한 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먼 저의 삶이 제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든 지금은,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더욱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

늦깎이 포도원 일꾼

글 - 조상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무엇인가 틀에 박히는 것 같은 답답함과 무엇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어느 것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힘들게만 살아온 인생이 원망스럽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걱정되고 그럽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차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인생에서의 역경과 모진 고통의 시간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였고,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 주신 것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미리 감사드리며 제가 담당해야 할 삶의 몫을 잘 해내는 질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의 품으로 나갈 수 있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서약을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믿음의 가족들과 이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윤승재, 윤혜영 오이코스



조상우 오이코스



김영준 (위) 김영준 오이코스 (아래)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

글 - 오양석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 확인할 수 있습니까? 14주 전에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장반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이렇다” 하고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결국에는 “거봐 누구도 확인시켜 줄 수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자신이 더 독특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벌써 다 눈치 채셨겠지만 저는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무식한 놈입니다. 하지만 몇 개 겨우 아는 성경 구절을 이곳저곳에서 짜깁기 하여 내가 원하는 뜻으로 풀이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반환점이었던 14년 전, 나의 무능력 때문에 첫 아이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했던 우리는 그 이후 그 교회를 더이상 나갈 수 없었고 나의 신앙관은 나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제 삶의 모든 초점은 돈과 능력이었습니다. 다니던 대학마저 때려치우고 오직 목표는 하나, 하나님인 아닌 돈이었습니다. 어느 단계가 되자 매우 거만해졌고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나중에 현금 많이 하고 하나님 사업을 많이 해서 천국가야지’ 하는 행위로 받는 구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꿈을, 제일 거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흔드셨습니다. 평생 나의 인생을 보장해줄 줄 알았던 주유소 본사에서 그간 38년 동안 땅주인과 계약했던 임대를 더 받지 못해 주유소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내 꿈의 기둥인 사업체가 하루 만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 이 모든 것이 아무 것도 아니었구나!’ 둘째 딸의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하는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부질없는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곧 저의 거만함과 잘못된 꿈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험박 섞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저를 이곳

에서 꺼내달라고...’ 지금도 약간 흔들릴 때가 있으면 그 때, 딸 돌 때 찍은 사진 안에 있는 저를 봅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축복으로 내 땅에서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성장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잔잔한 변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역시 성경은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고 묵묵히 계속 지켜봐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세 딸을 둔 아버지며, 나와 비슷한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가르치려 드는 아내도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세 딸들을 재운 후,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갑 안에 꼭꼭 숨겨놓은 것들을 보곤 합니다. 연필, 사탕, 껌, 포켓인형, 손전등, 크리스마스 위시리스트, 스티커 등등.. 이렇게 하찮은 것들을 행여나 잃어버릴까 꼭꼭 숨겨놓고 잠들 때까지 두 손에서 놓지 않는 딸들을 보며 웃음을 짓곤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얼마나 웃음을 지으셨을까?

요새는 차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보면 매우 섬뜩한 행동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믿지 않았을 때도 축복하셨는데 믿고 따르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실까? 하지만 이젠 시험을 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한기선 장로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단련되었는지 그 시험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싶은 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귀 기울이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내가 무엇이길래 아무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냥 같이 계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 훈련

글 - 김정원

헬로쉽교회에서의 3년하고도 3개월은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 훈련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간의 ‘제자반’뿐만 아니라, 미국에 와서 헬로쉽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가 그 훈련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헬로쉽교회의 예배는 저에게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과 생소한 찬양, 무대 위에 드럼과 전자기타, 그리고 찬양단까지. 예배가 아니라 무슨 ‘쇼’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찬양 중 손을 들라니. 장로교의 전통 속에서 자란 저는 기침소리도 내기 힘든 엄숙한 분위기와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에 따른 찬송과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나 익숙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고, 찬양 속에서 감동(아마도 하나님의 만지심이었겠지요)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꼭 일주일에 한 번 부흥회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깨뜨려나가셨습니다.

그렇게 1년 5개월 정도를 예배에만 참석하다가 오이코스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오이코스에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자매를 보며 ‘성령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함께 신앙서적들을 읽으며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성령님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교인’으로 살았던 지난 나의 삶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던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과 내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 돌로 친 자가 나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은 그 존재조차도

희미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등록과정과 성장반, 제자반을 마치기까지 1년 8개월이란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한 양육과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과정들을 하기 전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별로 궁금해 하지 않았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으니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삶의 별다른 변화 없이 그저 ‘교인’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년간 제자훈련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원의 서정을 배우면서는 나의 믿음의 여정을 뒤 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제의 주제에 따라 늘 토론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느라 수업이 늘 제일 늦게 끝이 났지만, 딱딱한 성경공부가 아닌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헬로쉽교회에서의 아주 제게 특별했던 하나님의 제자훈련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했던 헬로쉽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분명 그 곳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찬양 가사처럼 이제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곳이 기도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린 아이가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헬로쉽 한국학교 민속놀이 날

헬로쉽 한국학교에서 지난 2월 13일, ‘한국의 민속놀이’ 행사가 열렸다. 2002년 9월에 개교한 헬로쉽 한국학교에서는 2004년부터 매해 구정을 전후로 ‘민속놀이 날’을 정해 학생들이 한국의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학습의 장을 마련해 왔다. 민속놀이 종류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비석치기, 굴렁쇠놀이 등 다양하며 올해는 투호가 더해져 학생들이 더욱 많은 민속놀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올해 ‘민속놀이 날’ 행사에는 21명의 교사가 각 놀이장을 주관하거나 각 학급 학생들을 놀이장마다 인솔하고 다녔다. 학생들은 민속놀이 방법을 익히고 직접 해보는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놀이행사 지휘는 태권도반 이준혁 교사가 맡았고, 학부형 봉사자들이 놀이장을 꾸미고 떡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민속 과자 중의 하나인 달고나(또뽕기)를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맛볼 수 있게 하였고, 세배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모든 학생들이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 것을 체험하였다.

세배하는 자리를 통해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한국 전통 문화를 조심스럽게 좇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세배하는 것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 한국학교에서라도 세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 올해 처음 선보인 세배하는 자리가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뱃돈으로 미화 \$1짜리 동전을 예쁜 복주머니에 넣어서 세배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올해 ‘민속놀이 날’에는 ‘미니 전시회’가 열려 은장도, 상감청자, 청자, 백자, 분청 찻잔 세트, 남녀 고무신, 버선, 목안, 한지 공예품, 장신구, 악기, 모형 거북선, 모형 신라 금관, 모형 다보탑, 모형 석가탑, 모형 독도, 민속화, 한국 고유 민속 집기들과 북한 7도가 명시된 최근 한국 지도 등이 복도에 전시되었다. 이 전시물들은 헬로쉽 한국학교 소장의 것과 더불어 여러 교사 및 학부형에게서 전시회용으로 대여 받은 것들인데 외국인들도 흥미롭게 감상할 만큼 2세를 위한 문화 교육 자료로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글 - 성준화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녀, 이제 교회에 다닌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제 믿음의 나이는 20년이 넘도록 갓난아기처럼 걷지도 못하는 기어다니는 상태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xx해주시면 제가 xx해드릴게요.” 항상 거래로만 성사되는 그런 기도만 해왔습니다. 유학준비와 유학생살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만큼은 되지 않았습니다. 전 아직도 미국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삶을 놓고 나에게 좋은 삶이 어떤 것일까 마음속으로 재고 있었거든요. 아마 소그룹을 같이 나누신 분들은 아실 듯합니다. 제가 답답하다고 토로했었으니까요. 이 답답한 마음은 이튿날 저녁까지도 계속되었고,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부담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개선도 이루지 못한 듯한 실망감은 이튿날 저녁식사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말씀 후,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되뇌이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23년 동안의 교회 생활을 해도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다투고, 험담하고, 남에 대해 선불리 판단하고, 나를 앞세우는 교만한 삶을 살고도 저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극단적인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당당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다른 죄인들보다 약한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 두렵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 과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제 자신조차 보기 싫을 만큼의 싫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준비 시절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히 대들며 기도



하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나요? 저는 그 사람이 될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할래요. 하나님은 저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제 이름도 모르실 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힘든 고통을 허락하시겠어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저한테는 아니시니까 전 반대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제가 유학 오기 전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했던 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늘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모습이 보였고,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할 만큼 많은 양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그 때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한 세상의 죄인보다 더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의자에 숨어 기도하면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나면 포스터 위에 숨겨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대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저의 이런 추악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저는 무릎 꿇고 지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회개만 해도 모자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은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찬양팀의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이 기도를 한 뒤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찬양이었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찬양으로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듯 했습니다. ‘나는 네 이름뿐 아니라 네 생각과 그 때의 눈물까지도 다 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듯 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결코 헤어 나오지 못할 거 같았는데 전 이 찬양과 다른 찬양들을 통해 점점 회복되어져 감을 느꼈습니다. 전 이 수련회를 통해 미래에 대한 어떠한 뚜렷한 답은 얻지 못했지만, 깊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더욱 가까운 관계를 허락하시기 위해 제 마음 깊은 곳의 나쁜 마음을 씻어주신 듯합니다. 사실, 전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깊은 제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되는데요, 쓰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깊은 감사가 있다면 제가 이 부분은 감당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저같이 미천한 죄인에게도 깊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소리 질러 예수님 부르기

글 - 이기서



저는 일주일 전 1박 2일 금식수양회 때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가기 전날까지 갈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저도 모르게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오이코스 식구들에게는 등록 안했다고 말한 상태였지만 당일 성연 누나, 유선 누나, 준화가 한 차로 같이 갈 수 있게 되어 심심하지 않게 갈 수 있었습니다.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딸이 오랫동안 귀신 들려 아파서 병 나음을 받고자 하는 여인이 무리들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애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병 고침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줄 알고 예수님은 모른채하시다가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고쳐주십니다.” 저는 그 어떤 내용보다도 소리를 질러 애원하는 그 여인의 모습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찾을 때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인격체이신 그분께 나아가지 못했던 점이었습니다.

그 때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어렸을 때 넓은 운동장 저 멀리 지나가는 친구를 부르는 방법은 그 친구의 이름을 정말 큰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쳐다보지 않는다면 더 가까이 가서 더 악

을 쓰며 “야!!!! 뭐 아무개 나부랭탱이야~ 안 들려!!!!” 했을 겁니다. 그 전에 정말 큰소리로 남 신경 안 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신경이 쓰이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인격이신 예수님께서서 저 멀리 지나가고 멀어져 가고 계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껍뻍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믿음생활에서 너무 어두운 곳에서 허공에 기도하던 저의 머리 속에 뭔가가 보일락말락 하지만 뭔가 상황을 그려놓고 예수님께 정말 큰 소리 내어 간절히... 저를 알아봐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금식수양회 갈 때 기도제목으로 “내 삶을 이끄실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했는데 담대하게 계속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수양회 둘째 날 저녁에 기도회 시간에 일주일 전 일과 마찬가지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 이미 기도를 통해 은혜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자고 계속해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였습니다. 내심 “아, 난 이미 은혜가 충만한데..., 그럼, “성령 하나님 오시옵



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라고 반복해서 소리 내어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정말 전 이미 충만한데 성령님을 또 계속해서 구하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진지하게 구했습니다.

전에 양경옥 목사님 얘기처럼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구하면 뭔가 더 큰 은혜가 있겠지 하고... 그때는 오랫동안 서 있던 다리가 아파서 무릎을 꿇고 계속 반복해서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근데 한 5 - 10분 후에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1 - 2학년 즈음 됐을 때 동생을 잃어버렸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랑 동생이랑 좋은 놀이터에서 놀려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돌아오던 중에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 믿었던 동생이 집에 오니까 엄마가 “동생(기주)은 어디 있어?” 하고 물어서 보니 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려고 동네방네 큰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 나섰습니다. “기주야~ 기주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날 늦게 그 아파트 지역 동사무소에 어떤 분이 동생을 찾아서 데리고 계시더라고요.

제 동생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보다 3살 어리고 결혼도 했고 딸도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동생과 재수씨 모두 어서 하나님 만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받는 은혜를 동생도 경험하기를 두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생을 잃어버렸던 기억을 주시면서 지금 동생을 잃어버렸으니 찾으라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의 영혼을 찾으려 구하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찾아주실 거라고... “주여, 주여” 외치던 저의 기도는 “기주야, 기주야!!!” 외치며,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선 그때 모습처럼 너무나 현실적으로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정말 목소리를 더 크게 외쳐야 동생이 듣고 안심할 거란 생각이 들어 너무나 동생의 이름을 크게 소리 내어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동생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그렇게 짜증이 나고 허둥지둥 그게 어디 있을까 생각을 더듬는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생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님 심정은 얼마나 더 애가 타고 가슴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정신없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셨을까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에 간절함을 담기 위해 천국에서 못 만나고 지옥 불에서 고통을 느끼게 될 모습을 상상하던 것보다, 항상 보아



오던 동생을 잃어버려 찾기 위해 그 소란을 꺾던 그 옛 모습을 통해 저에게 더 간절함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믿음이 흔들려서 계속 방황하고 의심하는 사람을 정말 내 가족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형제, 자매로서 품어서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양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더욱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만 홀로 높이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글 - 임현리



1월 29, 30, 31일.

이미 학기가 시작됐고 아무리 개강한 첫 주라 해도 이번 학기는 열심히 하고 싶었기에 마음이 너무나 바빴던 한 주였습니다. 머리 속엔 온통 ‘이것도 해야 하는데 저것도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수련회를 기대했던 마음은 어느새 구석으로 밀려나고 ‘수양회 안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점점 제 마음을 지배하더군요.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왠지 이번 수양회 너무나 좋을 거 같다.’ 라는 기대감에 두근두근 했던 제 마음이 기억이 났습니다. 상윤이에게도 청년부로서 마지막 찬양 인도였고, 새로운 젊은 피로 더욱 보강 되어진 찬양팀도 기대가 됐고, 또한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메이징 그race(Amazing Grace)를 부어 주실 것 같다.”라는 김진광 목사님을 통해 들은 김원기 목사님의 말씀에 더더욱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양회 가면 한방에 주님 목소리라도 들릴 것 같은 생각에 ‘그래 가자. 그냥 다 차려진 밥상에 내 수저만 올려놓으면 되는 걸...’ 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강의 듣고 평소 때와 별반 다른 그런 스케줄. 수양회라고 하면 당장에 제 뒤통수를 딱! 하고 치는 깨달음을 기대했던 저에겐 솔직히 조금은 실망이었습니다. 꿈꿈이 생각해보고 다시 되뇌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었던 강의 덕

분에 딴 생각도 들고, 딴 짓도 하게 되고. 마지막 강의 시간엔 오후에 너무 뛰어 논 탓에 잠시 졸았던 저의 모습이 죄책감이 들어, 바로 이어졌던 기도회 시간에 쉽사리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라도 제대로 하고 가야지.’ 하는 생각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요, 이렇구 저렇구 하니깐 어떻게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한손에 잔뜩 사탕을 쥐고서도 다른 사탕이 너무나 달콤해 보여서 떼쓰는 철부지 아이처럼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바라기만 했습니다. 기도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제 마음은 더욱더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았고 제 마음에 쌓여 있는 울분만이 가득했습니다. 소리라도 고래고래 지르며 ‘하나님, 제 기도 듣고는 계세요.’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답답함에 눈물이 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괜히 제 자신이 갑자기 한심하고 초라해서 서러웠습니다.

‘니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 임현리 그러니깐 니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라는 마음속의 외침만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했습니다. 너무나 알고 싶었기 때문에 더 매달리고 더 구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찾았





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지치고 힘들어서 낙망하고 절망해 넘어져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또 넘어지면 '다시'를 외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거 같았습

아주시는 거 같았습니다. 저는 더 큰소리로 영영 울었습니다.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요, 이렇게 허물도 많고 어리석고 죄 많고 부족하지만요, 이대로 받아주세요.'

어제 맥체인 성경읽기를 하며 욱기가 참 마음에 와 닿



니다. 하루는 넘어져 다시 일어서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선 또 '다시'를 외치고 계시는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그냥 조금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되요? 저 여태 잘 달려 왔잖아요. 그냥 제 예전 모습 그대로 살래요. 아시잖아요. 저요 원래 이런 애라는 거요. 저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애라는 거 하나님께서 잘 아시잖아요.'라고 외쳐 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도 제목은 떨어져 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목이 터져라 '아버지' 라고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수 십 번, 수 백 번, 수 천 번,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딸이 아버지께 투정 부리듯 '아빠,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죠.



아빠, 세상의 짐들이 너무 무거워요.' 그렇게 울부짖던 저에게 갑자기 저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제 귀에 뚜렷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큰 위로가 찾아 왔습니다. 저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제 눈물을 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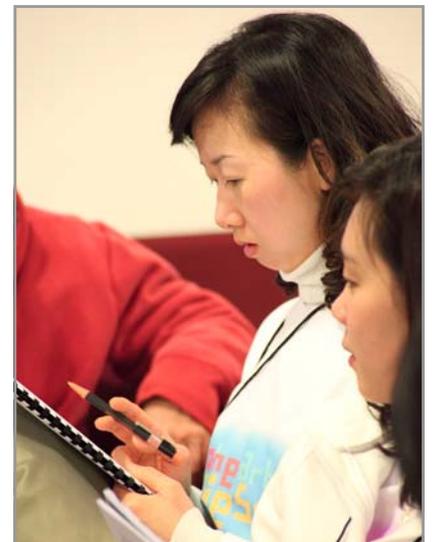
았습니다. 딱히 적용점을 찾았던 것도 아닌데 이유도 모른 채 형광펜으로 줄만 그어대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왜 욱기 7장이 자꾸 제 마음을 후벼 팠는지 이 간증문을 적으며 깨닫게 하시네요.

17절: What is man that you make so much of him, that you give him so much attention,

18절: that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and test him every moment?

19절: Will you never look away from me, or let me alone even for an instant?

욕기를 통해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바라 봤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폐쓰고 하던. 이젠 힘들고 지치니깐 저 좀 내버려 달라고 하던 저에게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심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던 수양회였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예배를 그리워 하며...

글 - 이요셉, 이에임 선교사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눅 22:46)

그렇게도 덥고 강한 햇볕만 이글거리던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니 살 만합니다. 새롭게 이사하여 온 집에 안정감을 가지고 또 이곳 타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살 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만함 속에서 주님 찾는 것을 잊곤 합니다. 이는 살 만한 것이 아니겠지요. 저희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영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많이 약해지고 게을러지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교회에 나가 힘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최근 들어 새로운 사역자 가정 오게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D종족을 위해 사역하는 외국 선교선들과 교제를 통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지 않는 삶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함을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I대학에서 4학년들의 졸업논문 심사로 꽤 바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의 대학생들은 졸업하기 위해 매우 힘든 졸업논문 과정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특히 I대학은 상위 레벨의 학교이다 보니 졸업논문 심사 과정이 매우 엄격하고 수준이 높았습니다. 작년 이맘 때 논문지도위원이 되면서 지도하였던 2명의 학생들은 이제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논문 심사를, 그리고 6개월 전부터 지도를 하게 된 8명의 학생들은 1차 논문 심사를 마쳤습니다. 비록 대학생들이지만 논문의 수준이나 형식 등은 웬만한 석사 학위논문 못지 않습니다.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논문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정이 들고, 일련의 과

정들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에게 저의 존재감이 각인되어지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력서 한 장 들고 무작정 찾아가서 이 대학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요청에 무엇인가 협력할 게 있는지 찾아보자는 답변을 듣고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거쳐 간 졸업생이 나왔으며 3월부터 대학원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한 정식 공문을 대학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시작하여 방문교수라는 직함도 받게 되고요. 그렇다고 제가 정식교수이거나 대학교로부터 비자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I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일정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공식적인(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식교수(지도교수)와 학생과의 관계에 비해 외부인사와 학생의 관계는 약할 수밖에 없으니깐요. 졸업을 하고 10여년이 지나면 인도네시아의 지도층이 될 엘리트 그룹인 I대학의 학생들, 더군다나 다른 젊은 층에 비해 이슬람에 대해 더욱 열심히 이 아이들과 더 자주 만나고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비즈니스)보다는 대학 교수로서의 비자를 받는 것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선교에 열려있는 기독교 대학에 MOU를 맺어 전략적으로 그 대학의 교수가 되지 않는 한 일반대학에서 개인자격으로 학교측과 논의를 하고 특히 재정적인 부분(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정부에 지불하여야합니다)에 있어 막히게 되고 실제 2년 전 이러한 벽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부터 시작하게 되는 대학원 강의에 집중하고 그 외에 저를 통해 학교측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도움을 주고 저를 좀 더 각인을 하고자 합니다.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저를 필요로 하고 저도 학교가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어서 비자 및 공식 교수로서 발령을 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동역자. S시에서 산 지도 20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저희를 도와주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환경적인 면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D종족을 위해 사역하는 미국인 선교사 두 가정과 교제를 하게 되었으며 한국인 선교사 한 가정이 S시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특히 S시에 4년간 살고 저희가 이곳으로 올 때 쯤 D섬으로 정착한 미국인 선교사 가정과의 교제는 저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대도시인 S시와는 달리 너무나 폐쇄적이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D섬에서의 생활과 외지인(특히 외국인)을 이웃으로 잘 받아주지 않는 데서 오는 고립감과 무엇을 해도 의심을 받고 노출되어진 사역 플랫폼, 어린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 이루 셀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주님을 향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정을 보며 저희가 많이 부끄러워지고 동시에 저희역시 사역의 전환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새롭게 이곳으로 이주한 한국인 가정과 함께 편하게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착과정 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면서 2년 전 힘들게 정착 과정을 겪었던 기억이 새롭게 나기도 하고 저희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정착, 적응 그리고 관계 형성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내 선교사의 편지.

2010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2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분주한 사역으로 인해 오히려 저는 아이들과 가사 일을 돌보는 일에 온통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이 학교를 옮겨 새롭게 적응하고 또 다시금 '틱 현상'으로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한국보다 좀 더 일찍 기상하고, 아이들이 등교하고, 또 다시금 집안일과 씨름하고 돌아서면 돌아오는 상과 함께 거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 해 오던 기도 모임이나 교제했던 모임들이 사라졌지만, 새로운 다른 단체의 가정이 이곳으로 오면서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이 새롭게 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건조해지고, 지쳐 있었는데, 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D섬을 방문해 그곳에 사는 미국인 가정과의 교제를 통해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언젠가는 D섬을 향해 삶을 드러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보기도 합니다.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닌 그들 속에 그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역의 준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곳 무슬림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 못한 마음에 부담과 또 사역적 특성으로 인해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삶을 통해 계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진은 지난 한 주간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참 분주하고 힘들게(?) 보냈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언어가 많다보니 (영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힘든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는 비슷한 언어군이니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인도네시아어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으므로 잘해야 하고, 중국어는 너무 어려우니 성적이 나빠도 이해해줄게. 다만 한자는 외워라.



상은 1월부터 누나가 다니는 학교 유치원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동안 한인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다가 올 8월 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을 대비해서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 학교에서 새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언어가 바뀐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2.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3. I 대학 및 S대학에서 강의 및 논문지도를 잘 감당하며, 그곳의 교수 및 학생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4. 대학교에서 비자를 받는 즉시 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

글 - Mark Paig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하와이의 코나 섬에서 열방대학(DTS) 제자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마크 백(Mark Paig)’입니다. 3개월간의 교육단계를 하와이에서 마치고, 태국에서 3개월을 보낸 지난 6개월은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간 것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12학년은 우울증과 마약으로 힘들어했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16살 때 참석한 한 수양회에서 보여주셨던 비전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하와이 코나 섬에 있는 열방대학(DTS)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2년 후, 대학교에 진학하기 바로 전, 하나님은 이 비전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열방대학에 가는 것이 저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에 가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하와이에 도착해서는 무엇을 기대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자교육 수업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제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코나의 ‘24/7 기도방’을 통하여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기도를 마친 후 저는 엄청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나홀 동안 성령에 취해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와 미래는 더 이상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큼 값어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 삶의 모든 염려들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난 날 나를 힘들게 했던 유혹들에 빠지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만족을 주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Hi, My name is Mark Paig and I recently finished a school in Kona, Hawaii called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I was in Hawaii for 3 months for the lecture phase and I went to Thailand for another 3 months. All I could say is that those past 6 months was a life changing experience. God literally transformed my heart and changed my view of the world.

I went to Hawaii because I needed help. During my senior year in high school, I was struggling with depression and drugs. So, basically God reminded me of a vision that I received when I was 16 at a retreat. It was me going to a DTS in Kona, Hawaii. Two years later, right before I'm about to go to college he reminds of me of this vision I got. And I told myself I have to go because it's best for me. So I arrive in Hawaii and I do not know what to expect. All I prayed was God "I am willing to let everything go and I want to be love sick for you."

I thought during class I will experience God in a radical way. However, it was not the class but the 24/7 prayer room in Kona that God changed my heart. I kept on repeating this prayer "God I give everything up! I want to be love sick for you and show me the revelation of your love." After saying that prayer, I felt this supernatural love. I felt God giving me peace and hope in my life. Also, I felt spiritually drunk for 4 days. All of a sudden the past and future did not matter as much. All of a sudden I realized that its about seeking the intimacy day by day and that nothing else was worth it!

That God was the only thing in this world that is worth living for. All my struggles in life started to fade away. It was not worth falling into the temptation I use to struggle with be-

와 좋은 시간을 갖기 원하시며 우리를 감동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이웃에게도 나에게 주신 동일한 사랑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고 교육과정 내내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저는 등산용 배낭이 필요했는데 가장 저렴한 것이 \$130이나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부담되는 가격이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등산용 배낭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틀 후,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학교 리더 앤드류 요크가 옆에 와서 앉더니 등산용 배낭 필요한 사람이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라고 감탄했습니다.

교육 과정 동안 저는 회개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아픔과 고민거리를 털어놓았을 때 우리의 삶에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저의 삶은 영원히 달라졌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좀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단 바우만(Dan Bauman)’이라는 친구가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장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읽으며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지를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태국에서 선교 활동하는 내내 저에게 의욕을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저에게 섬기는 자의 마음을 주셨는데, 특히 ‘딤(Dip)’이라는 남자를 대할 때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술주정뱅이로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마당을 2주에 걸쳐 청

cause the relationship with this awesome God was so much better. I told myself why not follow this God who brings satisfaction that no one else can give you. I started to understand that God loved me so much. That most of the time he wanted to have a good time with us and surprise us.

Then, I started to fall in love with myself because I understood that God loved me so much. After that I started falling in love with my neighbors because God had the same love and hope for them just as much as he did for me. This blew my mind and during the lecture phase I was continually blasted by his love. For example, one day I needed hiking backpack and the cheapest one was 130\$. For me this was too expensive so I asked God “it would be cool if you got me a hiking backpack.” Two days later I’m eating lunch and one of our school leader named Andrew York sits right next to me and asks does anybody need a hiking backpack. I was like wow God your awesome!

During lecture phase I also saw the power of repenting our sins. I saw freedom in my life and the lives of others when we publicly announced our struggles and pain. I think it was so powerful because I felt closer to God. So as lecture phase kept on going I kept on seeing God doing amazing things. So once I started to pursue him my life was forever changed. I started to understand that all God ever wanted was for us to understand his heart.

In Thailand, I think I personally grew more. I remember a word from this guy named Dan Bauman. He said, “when we go to our outreach location it’s important because its the best place for us to meet God.” So when I was in Thailand, of course I wanted to help the needy and poor. However, I realized that growing in relationship with God and still pursuing him was more important. I got blasted by reading Christian books and the bible. I kept on getting revelation after revelation of how he loves us and how he desires a relationship with us. This motivated me whenever I was doing ministry in Thailand.

First, God gave me a servant’s heart. Espe-

소해 주었습니다. 정말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청소해주는 것만큼 큰 사랑과 겸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점심 먹으러 나가고 없을 때마다 ‘딤(Dip)’은 혹시나 자기를 버리고 떠난 줄 알고 우리를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는 ‘딤(Dip)’의 마당을 청소해준 일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딤(Dip)’은 우리에게 사랑받음을 느꼈을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또 다른 경험은 방콕의 금지구역에서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창녀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본 것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방콕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사람, 특히 서양 남자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질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히 내가 누구를 정죄하느냐고 나무라셨습니다. 그 남자들이 섹스를 찾아 그곳에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삶의 허전함을 채우러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잘못된 장소에서 찾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한 때에는 삶이 허전해서 마약 같은 잘못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남자들이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속에 평화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 ‘치앙라이’에서 하나님은 저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치앙라이를 향한 버스 안에서 하나님은 11월이, 기적을 보게 되는, 엄청나게 놀라운 한 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그 말씀을 받았습시다. 태국에 있는 동안 저는 친구들과 ‘winning eleven’이라는 비디오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치앙라이에서는 비디오 게임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한 남자가 이 비디오 게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친구 녀석이 뻔뻔스럽게 그 사람에게 같이 놀아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암(Arm)’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암(Arm)’의 부인을 만났는데 태국에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 부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와 2주 동안 같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난 후 우리는 그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동차는 영

cially, to this guy named Dip. He was hated by all the neighbors because he was considered as the “drunky.” Despite being unloved, we cleaned up his yard which took two weeks. And it was so worth it. There is no greater love and humility than cleaning up for someone. Whenever we went out for lunch breaks, Dip would be looking for us scared that we might have left him. I saw the impact we made by cutting up his yard that no one would do. It showed me that Dip felt loved by us and importantly he felt the love of Christ.

Another important life changing experience was working in the red light district in Bangkok. I have never seen so many prostitutes in my life. It was the point where I could not look up. Honestly, words can not describe what I saw. During my time in Bangkok, God told me not to judge other people especially the western man. Yeah at first I was angry at these man by saying that it is so low of them to do that. However, God convicted of me by saying who am I to judge. Yeah some of these men are looking for sex, but some are looking to fill the emptiness in their lives. They were just looking at the wrong places. Even in my life there were times where I felt empty, and I was looking for happiness in the wrong places like drugs. So, yeah I learned that even though these Men were living in sin, God still had hope in these men. And it was our duty to tell these men that Jesus it only one that can give peace and hope in our lives.

In Chang Rai, which is the northern city of Thailand God started to surprise me. While I was taking a night bus to Chang Rai, God spoke to me saying that this month of November is going to be a powerful month. I will see miracles. I was like that’s awesome God I receive it. So yeah my friend and I started to play video game called winning eleven in Thailand. We could not find the gaming place in Chang Rai. However, one day we see this guy playing. So my friend bold enough asks if we can play.

The guy named Arm with a smile said of course. We met his wife and she spoke perfect English in Thailand. The first Thai woman that

화 'Fast and the Furious'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음료수와 저녁을 사 주었고, 유심히 보면 입고 있는 옷도 무두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방콕에서 활동하는 영화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화배우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암(Arm)'이 보여준 자신의 모델 사진과 영화 사진들을 보고 전 정말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도모임에 초청했는데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전부터 크리스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모임에 참석한 둘째 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그녀는 믿음에서 떨어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우리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그녀 또한 다시금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태국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태국은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암(Arm)'과 그의 아내에게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대한 간증거리입니다.

11월 말 쯤에 우리는 '매 알(Mae AI)'에 위치한 고산족들에게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노방전도를 마치면서 우리는 치유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참으로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아픈 사람들의 다리, 팔, 허리를 치유해주심을 보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인 '크리스 리틀(Chris Little)'은 왼쪽 귀머거리의 환상을 보고, 그 사람을 불러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치유해주셨습니다.

선교를 마치며 저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라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분은 우리가 감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잔치 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친밀함 속에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번역: 양하영>

was fluent in English that we met. It was really a relieve. So after playing video games with him for two weeks we realize this man is really rich. His car looked like those cars you see in the movies like Fast in the Furious. He would always buy us drinks and offer us dinner. Also, I realized he always wore expensive clothes.

So we asked what he did for a living, and he said he is a Bangkok movie star! My friend and I were amazed. All this time we were playing video games with a movie star. Arm showed us some of his model pics and his movie pics. My mind was blown away. So, we asked him if he wanted to come to our prayer meeting. And he decided to go. Apparently Arm was always curious about being a Christian, and on his second day in our prayer meeting he accepted Christ! Later we shared the gospel to his wife and she apparently was a Christian but fell away. And after sharing with her, she decided to recommit her faith! Wow god was so good. It was significant because it's hard for Christians to convert Thai people. Thailand is a Buddhist nation, therefore what happened to Arm and his wife was a testimony of the power of God.

Then, near the end of November we did open air evangelism in the hill tribes in Mae AI. At the end of our open air, we called out for anybody that needs prayer for healing. There were many people that came up. And let me say our God was good. We saw Jesus healing legs, arms, and backs. One of my friend Chris Little got a vision of some man with a deaf left ear. He called the man out and as our group prayed for him and his ear got healed.

When outreach was over, I learned that our God was not some boring God. He is a God who wants to surprise us and have a feast with us. All he wants is our hearts. Because once we pursue this God, he will pursue us and give us a love and hope we can never imagine. All God ever wanted was to be with us. Nothing we can ever do can ever satisfy him. Now I realized that it's all about walking in intimacy and shining his glory with the overflow. 

헬로십의 어느날

딱! 걸렸어!!!

무언가 밀매를 하다가 (손에 주목하라)
현장에서 걸린 동네 아저씨와 청년이
카메라를 발견하자 바로 놀라는 표정?
(한마음 수양회에서)



행사일정

- ◆ 2월 17일 (수) - 3월 24일 (수)
사순절 수요일 새벽기도회 (MD/VA)
- ◆ 2월 21일 (일) - 5월 2일 (일)
NLF 알파 초청 만찬 12주 (VA)
- ◆ 3월 14일 (일)
평신도 제자훈련 센터 개강 (MD)
- ◆ 3월 29일 (월) - 4월 3일 (토)
사순절 특별 새벽부흥회 (MD/VA)
- ◆ 4월 4일 (일)
부활절 예배, 성찬식 (MD/VA)

자유가 그리워?

동지,
저기 보이는 다리만 건너면
자유의 땅이랴요...
(한마음 수양회에서)

